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3월 12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6장 24-30절

설교제목 :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서술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대로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대상에 따라 제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피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모든 내장의 기름을 떼어서, 두 콩팥과 함께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음식이 됩니다.(레6:26) 하나님께서 속죄제 희생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희생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가 거룩하게 됩니다.(레6:27)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주제가 마태복음에 연결이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가정은 12살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암송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머리 속에 통째로 레위기 법이 박혀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8:1-2의 본문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마8:1-2)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나병환자는 가장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나병환자가 예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는 예수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팔짱을 끼고 봅니다. 나병환자가 죽나 안죽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환자가 안죽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예수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눈 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어 그에게 대시자 그가 즉시 깨끗하여졌습니다.(마8:3) 제사없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려면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없이 부정에서 정결로 갔습니다. 레위기 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이길래 부정한자를 깨끗하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대한 질문을 유대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접촉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마9:20을 보면,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법에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집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마9:22) 예수님을 접촉함으로 거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태9:23-24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그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레위기 법에 사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마9:25) 예수님이 접촉하시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면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 순식간에 거룩으로 갑니다. 예수와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기자는 레6:27의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는 속죄제의 규례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예수와 접촉되면 한 번의 접촉으로 인해 순식간에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존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6:27-28에 보면, 속죄제에서 사용되는 희생의 피가 옷에 묻을 때, 피가 묻은 옷을 성막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만 씻으라고 하십니다. 토기에 희생에 물을 넣고 끓일 때 국물이 토기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씻어낼 수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거룩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니 그릇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기에 삶을 경우는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깨뜨리지 말고, 그릇을 닦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의 기준을 높이시길 원합니다. 제물의 피를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제물은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물과 회중이 지은 죄를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물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들어가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습니다.(레6:30) 다 불에 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를 매우 비중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거룩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대충 살지 말기 바랍니다. 거룩의 기준을 높이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러한 거룩을 어떻게 지켜 갈 수 있습니까? 레6:29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계3:20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의 ‘먹는다’는 말은 헬라어는 저녁식사를 뜻하는 ‘데이프논’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만찬을 뜻하는 단어로 오래 앉아서 함께 먹고 깊은 인격적 친교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신앙의 대상인 절대자와 교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개의 종교는 종교의식이나 예식입니다. 이러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변색되고, 희미해지고, 퇴색합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참된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속죄제의 희생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해 봅시다.(레6:27 / 마태복음 8장)
- 2) 레6:27-28에 보면, 피가 어떤 옷에 묻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하고,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리라고 하고, 유기에 삶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계3:20)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영적 제사장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